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임명

자승 스님, 11일 임명장 수여... 지역불교 활성화 당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에 호성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호성 스님은 2008년 주지 부임이래 3번째 본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임명장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열심히 고화합하니 계속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지난 8년간 교구발전과 문화화에 높은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종교 융지 확보와 지역포교 및 복지

사업에 매진해 큰 성과를 이뤘다”고 축하했다.

이에 대해 호성 스님은 “안동청소년수련관을 개원한 이후 지역 청소년 포교 지행이 바뀌었다”면서 “수련관 이용 청소년이 주말에만 200명을 넘는다. 미술치료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 배치하니 매우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불교계는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포교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불교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계종 환경위, 고리원전 현장 방문

8월 22일~23일 워크숍, 원전실태 견학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가 최근 재가동하기 시작한 노후원전 고리원자력발전소를 현장방문한다.

8월 22~23일 워크숍을 개최하는 환경위원회는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 원자력발전소의 실태와 현황을 견학한다. 이후 통도사 자비도량에서 향후 탈핵활동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고 불교환경제21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2015년 활동 계획 역시 논의된다.

환경위는 올해 주요활동으로 밀양송전탑건설 반대, 탈원전 성명서 발표, 탈핵 토론회 및 한일국제세미나 개최 등 탈핵활동을 전개해왔다. **배현진 기자**

“가자지구 폭격 즉각 중단하라”

KCRP, 12일 호소문 발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가 8월 12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참혹한 전쟁에 대한 즉각적인 종식을 호소하고 나섰다.

KCRP 종교간대화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정의롭고 정당한 전쟁은 없으며 전

쟁으로 평화를 이룰 수도 없다”면서 “전쟁을 통해 이루려는 목적이 전쟁 속에서 죽임을 당한 억울한 생명들보다 더 소중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와 정의가 전쟁과 담욕을 이기는 세상이 팔레스타인과 온 지구에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1005호 20면 문화탐 탐기사 제목중 “불상에 생명력 넣는 ‘불복장’...의식 아닌 문화유산”을 (중략)...의식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정정합니다.

비판·견제 ‘눈길’... 출석률 등 구태 ‘여전’

조계종 제15대 중앙총회 성과와 과제

지난 2010년 출범한 조계종 제15대 중앙총회가 제199차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오는 10월 16일 제16대 중앙총회의원 선거까지 2개월 여의 시간이 있지만 입법 회기를 모두 마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15대 중앙총회는 막을 내렸다.

제15대 중앙총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13회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다뤘다. 전반기 의장은 보선 스님이, 후반기 의장은 항적 스님이 맡아 의사를 진행했다.

제15대 중앙총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제190회 임시회에서 사찰예산회계법, 사찰 운영위원회법, 산중총회법 등 종단 1차 쇄신입법들을 대거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백양사 도박 사건으로 승가의 청정성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시된 총무원의 쇄신 법안을 중앙총회가 입법화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 것이다.

또한 ‘동화사, 쌍계사, 범어사 총림 지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8대 총림 시대를 열게 한 것도 이번 중앙총회의 주요한 성과이다. 삼장염불원법을 제정해 수행의 다양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단기출가법을 만들어 출가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활발해진 정책질의도 이전 중앙총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은 중앙총무기관의 허점을 날

카롭게 질의해 종단의 총무행정이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긍정적인 성과가 상당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총회의원 출석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다. 다양한 입법 성과에도 승려법, 교구법, 총

사찰운영위법 등 쇄신 입법

총림법 통과로 8대 총림 열어

활발한 정책질의로 총무행정

미비점 지적 등 성과 이뤄내

총회의원 낮은 출석률 해결돼야

위원회 많아도 ‘유명무실’ 평가

비구니 권의 향상 여전히 ‘구태’

무원장 선거법, 중앙총회의원 직능직 선출 방법 등 종단 선거와 관련된 핵심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육의 티’이기도 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위한 법규 위원회와 초심회계위원회의 진입이 무산된 것



제194차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에 대한 비하 발언이 이어지자 비구니 총회의원 스님들이 모두 퇴장했다. ‘사부대중 공의의 민주적 종단 운영’의 1994년 종단 개혁의 가치 실현은 아직 요원함을 보여준다.

은 비구니 스님 중심의 종단 풍토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94차 임시회에서는 이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비구니 스님의 차별 발언이 이어졌고, 결국 비구니 총회의원 스님 10명이 모두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특별위원회가 제정돼 활동을 펼쳤음에도 소정의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은 향후 중앙총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했다.

중앙총회 부의장 법안 스님은 “제15대 중앙총회의 4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종단 쇄신 입법을 통과시키는 등 종단 안정에 적지 않은 부분 기여했다”면서 “앞

으로 의원들의 입법전문성을 높이는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책질의가 활성화되는 했지만 종단 총무행정에서 비판·감시·견제 기능이 부족했다”면서 “총책질의 역시 특정 의원 몇몇에 집중돼 있고, 총책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구니 총회의원 일운 스님은 “비구니 권의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종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15대를 기반삼아 16대에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용주사 주지 선거 ‘성관·성월·성장’ 3파전

중앙선관위 후보 자격 인정... 20일 산중총회

“본사 운영위 결정 따르라”

송담 스님 유시 논란까지

용주사 주지 선거가 성관·성월·성장 스님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조계종 중앙선관위원회는 8월 14일 오전 11시 용주사 산중총회 후보자 자격심사와 구성원 명부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모두 ‘이상없음’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용주사 전강문도회 운영 위원회가 주지 후보자인 성월 스님이 본사 주지 피선거권이 없다며 제출한 이의제기에 대해 “승적조치특별법에 의거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승적조치특별법의 옳고 그름에 대해 다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총무원 총무부도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한 만큼 성월 스님 주지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선관위원 선문 스님의 반발로 전강문도회의 이의제기는 호법부에 이첩하도록 결의했다.

용주사 산중총회 구성원은 모두 203명으로 확정됐다. 구성원이상자와 타교구선거권 행사자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비구 168명과 비구니 35명이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용주사가 차기 주지를 선출하지 못하고 직무대행체제를 이어 온데 우려를 표하고, 중앙총회에 관련법을 개정

해 장기간 주지선출이 되지 않는 사찰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회가 선거를 주재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용주사 주지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전강문도회의 최고 어른인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은 8월 10일 유시를 내리기도 했다. 스님은 하안거 해제와 백중 법회를 앞두고 대중 스님들에게 용주사 차기 주지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문중 의사 결정 기구인 용주사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반대편 측은 유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용주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호)는 13일 오후 2시 관음전에서 전강문중 운영위원회 위원회 중진 긴급회의에서는 진위 논란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 현대사 속

불교의 역할은

22일 승가교육연구자 워크숍

종단 교수아사리 및 장학승 등 승가교육 전문연구자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대 한국사회 속 불교의 역할을 모색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연구소장 해명스님)은 오는 22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승가교육전문연구자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강사로 나서 ‘한국사회의 현황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에 스님들은 현 한국사회의 현황과 종교, 국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종단의 현실과 미래, 바람직한 모습과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일심법계관 (一心法界觀)

이 관법은 한 번 생각하거나 잠시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무한히 넓은 아량과 이해심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마음을 허공같이 만들고 바다같이 키울 수 있는 뛰어난 공덕을 지닌 놀라운 관법이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관념을 가졌던 착하던 악하던 바르던 그르던 이해롭던 어리석던 따질 것 없이, 마음은 생각하고 굴리는 대로 조성되는 게 그 본질인데, 자기 내면에서 무엇을 못 부수고 무엇을 창조하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비록 싸우고 다툰 일이 자주 생겨도 실상 내 안의 마음은 별로 고통스럽거나 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형의 마음은 제가 바라보는 방향과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그 궤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는 습성도 있고 업도 숨어있고 바탕 근기도 있고 환경에서 오는 무언의 제약적인 틀도 숨어있어 성품이 맑게 빛나는 붓다와는 달리 모든 중생은 한계적으로 그 의식이 적용한다.

하나 마음 안에 숨은 의식의 바탕만은 전혀 고정된 게 아님으로 어느 방향으로나 제멋대로 분출될 수 있다. 즉 마음은 품기 나름이고 생각은 일으키기 나름이며 신체는 다스리기 나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의식이 갖고 있는 본래의 힘이며 마음이 갖는 제약 없는 본성이다. 또 어

떤 사념도 다 마음이라는 한 틀 속에서 뿜어지는 결과물이다.

이런 견해를 일심법계관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알면 누구의 어떤 생각도 중요 없이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어떤 수련법도 마음의 눈을 키움에는 이런 관법의 자세를 따라잡지 못한다.

자기 나름대로 수십 년을 닦은 수행자들도 하찮은 일로 쉽게 대립하고 흥분하는 것을 보면 이 관법의 소중함을 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키우는 데는 관법 중에 제일 큰 관법이 바로 일심법계관이다.

참 마음을 깨친 거룩하신 붓다들이 바로 이 같은 관법으로 모든 분별심을 해체하여 간막이를 즐기는 중생심을 가볍게 조복하고 계시다. 이 관법은 내 안의 사나운 분별심을 간단하게 허물어버린다.

인과는 무섭지만 마음은 한량없는 자유성을 가진 공(空) 즉, 생각은 자유!

해탈을 구하기에 오히려 속박이 생기는 것이다. 해탈성을 알면 피곤함이 없는데도 말이다.

- 「삼계를 벗어나는 최상의 해탈법」 (승상섭 편역 | 역사야문) 중에서



생활법문 ①

생활법문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보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나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12004-8213.4

